

방현리 芳峴里

방현리·芳峴里

방현리는 엽티읍의 한 마을로 방현리는 쇠일, 방수물, 새터 마을로 구분되며, 방현리는 총 인구수가 748명으로 호구수는 252호로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본래는 아산군 근남면의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방수동, 장현리, 금곡리, 가곡리, 호동등 병합하여 방수와 장현의 이름을 따서 방현리라하여 엽티읍으로 편입 되었다.

<방현리 위치도>



⊗ 쇠일, 방수물, 새터 마을 (방현리)

방현 1리는 쇠일 마을과 갈월 마을로 구분되며, 쇠일 마을은 방현1리의 주된 마을로 새터 동쪽에 있는 큰 마을인데, 예전에 금이 났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갈월은 새터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가곡리라고도 하며, 전에는 갈대가 많이 났다 붙여진 이름이다.

방현2리는 방수물 마을과 장터 마을로 이루어 졌으며, 방수물 마을은 방현2리의 주된 마을로 샘 물이 많고 좋다하여 유래 되었으며, 장터 마을은 방수물 부근에 있는 마을로 노루 모양의 고개가 있어 장터라고 했는데 변하여 장터가 되었다고 한다.

방현 3리는 새터 마을과 매재 마을이 있는데 새터 마을은 방수물 동쪽에 새로 된 마을로 지형이 병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조사당시 방현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 치

쇠일마을은 온양온천역에서 음봉·영인 방향으로 45번 국도를 따라 충무교를 건너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지점에 206번 도로와 나누어지는 우측의 마을에서 가장 안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방수물 마을은 쇠일마을과 새터마을을 나누어 주는 온양온천역에서 음봉·영인 방향으로 45번 국도를 따라 충무교를 건너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지점에 206번 도로와 나누어지는 좌측의 마을이다.

새터마을은 방수물 마을을 지나 쇠일 마을을 가기 전의 마을이다.

2) 현 황

쇠일마을은 총 인구수가 231명으로 남자 128명, 여자 103명이며, 호구수는 72세대로 6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방수물 마을은 총 348명으로 남자 178명, 여자 170명이며, 호구수는 120세대로 70%가 농업, 축산업 10%, 기타 서비스업이 20%로 이다.

새터 마을은 호구수는 60세대로 인구수는 총 169명으로 남자 83명, 여자 86 명이며, 66%가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 인구 분포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남	여
쇠일마을	231	128	103
방수물마을	348	178	170
새터마을	169	86	83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축산업	기타서비스업
쇠일마을	100%	69%	18%	13%
방수물마을	100%	70%	10%	20%
새터마을	100%	66%	18%	16%

쇠일마을의 농경지 현황으로는 논 40ha, 밭 39.2ha이며, 농기계는 경운기, 이앙기등 각종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마을회관이 1개소 있으며 앰프시설도 비치되어 있다.

방수물 마을의 농경지는 논 30ha, 밭 35.2ha이며, 농기계는 경운기가 가장 많고, 다른 농기계들을 조금씩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회관이 1개소 있는데 앰프시설이 있다.

새터마을은 농경지 현황으로는 논 19ha, 밭 13ha이며, 농기계는 경운기, 병충해 방제기 및 기타 농기계들을 끌고루 가지고 있다. 마을회관이 1개소 있고 앰프도 비치되어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쇠일마을	79.2ha	40ha	39.2ha
방수물마을	65.2ha	30ha	35.2ha
새터마을	39.3ha	19ha	20.3ha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쇠일마을	1개소	1개소	-
방수물마을	1개소	1개소	-
새터마을	1개소	1개소	-

쇠일 마을의 성씨별 분포 현황을 보면 김씨가 1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 현황을 보면 50~60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포되어 있다.

방수물 마을의 성씨별 현황을 보면 이씨가 가장 많은 15%로 나타났으며, 끌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새터 마을의 성씨별 현황을 보면 김씨 18%로 가장 많고 연령별 현황을 보면 노령화 되는 마을의 추세와 같이 50~7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김씨	이씨	박씨	최씨	기타성씨
쇠일마을	72호	14호	2호	4호	7호	48호
방수물마을	120호	15호	18호	6호	4호	77호
새터마을	60호	11호	8호	-	1호	13호

- 최고령자

쇠일 마을의 최고령자는 박씨 할머니로 91세 이시며, 방수물 마을의 최 고령자는 정기순 씨로 87세이시며, 새터 마을의 최 고령자는 88세로 김우새 할머니이다.

3) 자연경관

쇠일 마을은 마을 어귀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고 앞에는 논이 위치하고 마을 뒤로는 산이 있으며, 갈월 마을에도 역시 큰 정자나무가 있다.

방수물 마을은 도로변에 위치한 마을로 커다란 정자 나무가 있으며, 조그마한 건물과 기와집들이 몇 가구 안되는 아담하고 소박한 마을이며, 장터마을 근처에 노루모양의 고개가 있다.

새터마을은 앞으로 내가 흐르며, 논이 펼쳐져 있다. 방련소류지라는 저수지가 1구와 3구 사이에 자리하고 있고 이 마을에도 웅장한 보호수가 있었는데 얼마전 폭우로 그만 쓰러져 버렸다.

4) 마을 변천 과정

방현리는 아산군 근남면의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방수동, 장현리, 금곡리, 가곡리, 호동을 병합하여 방수와 장현의 이름을 따서 방현리라 하여 엄티읍으로 편입되었다.

5) 입 향

쇠일마을은 200년전부터 내려 오는 동적보가 있는데 6. 25때 소실되었고 그 후 처음 등 록한 사람은 150년전 송혜원으로 사진에서 왔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정확한 마을 형성년대를 추정할 길이 없다.

방수물 마을은 처음 원거인은 홍씨로 지금 마을에 19대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의 형성년대는 서기 1400년경 약 570년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새터 마을의 윤씨와 박씨가 4대째 살고 있다. 지금은 마을에 200년 수령의 정자나무가 있어 서기 1800년경 약 200년으로 추정 한다.

6) 지 명

十 쇠일마을의 지명

- 갈월 : 새터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갈대가 많이 났다함.
- 쇠일 : 새터 동쪽에 있는 큰 마을로 예전에 금이 많이 났다 함.
- 확샘 : 돌절구처럼 생긴곳에서 물이 나옴.
- 평밭들 : 정자나무 앞의 들로 전에 밭이었던 것이 논이 됨으로 지어진 이름.
- 장안들 : 성형금속 좌측 고랑이 있는 들.
- 방련소류지 : 방현리에 있는 만수량 89천톤인 소류지로 1구와 3구사이에 있음.

十 방수물 마을 지명

- 방수물 : 방수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샘 물이 많고 좋음.
- 장터(장티) : 방수물 부근에 있는 마을로 노루 모양의 고개가 있어 장티라고 했는데 변하여 장터라고 함.

十 새터마을 지명

- 새터 : 방수물 동쪽에 새로 된 마을 지형이 병처럼 생겼다 하여 일명 호동이라고도 불림.
- 매재 : 방수물 앞에 있는 낮은 산으로 밭을 만들었는데, 토박하고 메저서 곡식이 잘 되지 못함.

·동채내 : 새터 앞에 있는 내

- 고자샘 : 보성샘 동쪽에 있는 샘으로 물이 많이 나서 그 부근의 논을 비옥하게 해줌.
- 말쌈샘 : 보성샘 뒤에 있는 샘으로 말의 음부처럼 생겼음.
- 보성샘 : 보성들에 있는 샘으로 물이 많이 남.

·요왕샘 : 고자샘 동쪽에 있는 샘으로 용이 이 샘에서 올라갔다 함.

·대령굴 : 새터 앞에 있는 들

·보성들 : 대령굴과 하말창 사이에 있는 들.

·하말창 : 대령굴 아래에 있는 들.

7) 전 설

十 은행나무의 전설 (쇠일 마을)

지금으로부터 1000여년전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집에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 부부는 너무나도 금실이 좋아 귀신까지도 부러워 할 만큼 그렇게 금실이 좋았다. 하루는 남편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이 부인은 텅빈 집에 혼자 있노라니 허전함과 공포로 가득차 눈물만 흘리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자정 무렵 문을 두드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내 남편은 손에 점이 있으니까 우선 손을 보여 주세요" 잠시후 하얀 백지장 같은 손을 보여 줬다. 그때 부인은 좋은 방안을 생각해냈다. 다행히도 그는 가슴에 은장도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괴한이 나타나더라도 싸울수가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어쩌면 내 남편 손과 같을까"하며 있는 힘을 다하여 손을 잡고는 은장도로 마구 찔렀다. 그 부인은 다만 정절과 자기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괴물은 점점 사라져가고 부인은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음날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 괴물은 다름 아닌 늑대가 남편으로 가장해서 부인을 해치러 온 괴이한 행위였고, 남편은 나무를 지고 내려오다 구덩이에 빠져 동네 사람들의 발견으로 간신히 나올 수 있었다. 남편은 부인의 가당한 이야기를 듣고 몹시 슬퍼하며, 시체를 화장하여 은행나무를 심고 뼈가루를 그 주위에 뿌렸다고 한다. 비오고 눈 내리는 날이면, 그 은행나무는 부인의 소리로 슬피 운다고 전해진다. 지금은 마을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고 유익한 장소가 되어 있다.

十 정자나무의 전설 (방수물 마을)

옛날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이 처녀가 정자나무에 줄을 매고 그네를 타다가 끈이 끊어져 그만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며칠후 동네의 한 아주머니가 이웃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정자나무 밑에 이르자 갑자기 줄이 내려오더니 머리에 인 광주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 이튿날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가보니, 광주리가 밑에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처녀의 혼이 들어 있다고들 생각한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 행사

쇠일 마을에서는 매년 12월 말에 대동계를 통하여 마을에 대소사를 서로 의논하며, 청년회에서 운영하는 위친계가 있어 애사가 있을 시 서로 도와 주고 있다.

방수물 마을은 칠월 칠석날 마을 노인들을 모시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한 쇠일 마을과 마찬가지로 이 마을에서도 매년 12월 말일경 대동계를 통하여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 처리하고 있다.

새터 마을은 칠월칠석날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노인 잔치가 하였으며, 연말에 대동계를 통해 마을의 대소사를 서로 의논하는 있으며, 청년회에서는 마을 어른이 상을 당했을 때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도 같이 모여 도와 주고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

10) 종교단체

쇠일 마을에는 공주 천주교회가 있는데 신도수는 50~60여명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방수물 마을과 새터 마을에는 종교 단체가 전혀 없다.

11) 공장현황

쇠일 마을에는 성형금속으로 산업용 냉장에 관련된 회사이며, 방수물 마을에는 제삼물산으로 식료품 제조 회사가 있으며, 새터 마을에는 삼진 방음방진과 신도 종합상사로 재생하는 공장이 있다.

力제삼물산 : 방현 592-3 식료품 제조, 허가일 94. 5. 6.면적 2,516㎡ 휴업중

力성형금속(주) : 방현 160-1 산업용냉장 허가일 88. 9. 3. 면적 3,474m² 종업원수 47명

力삼진방음방전 : 방현 389-3 금속조립구조 허가일 95. 5. 10. 면적1,706m²휴업중

12) 마을특성

쇠일 마을에는 뒤에는 야산이 있고, 마을 앞에는 논이 펼쳐져 있고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벼농사와 포도 농사를 짓고 있으며, 마을에 큰 은행나무 정자가 있으며, 갈월 마을에도 느티나무 정자가 있다.

방수물 마을은 도로가에 위치한 마을로 아름드리 정자 나무가 있으며, 한 500년이 된 것으로 추정되며, 밭농사를 많이 짓고 특산물로는 화훼단지로 국화, 분재, 백합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버섯도 기르고 있다.

새터 마을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으며, 특산물로는 이곳도 약간의 화훼와 분재를 하고 있고 몇집은 젓소로 기르며, 마을 뒤로는 산이 둘러 싸여 있고 마을 앞에는 넓은 논이 펼쳐져 있다.

- 계 속 -